2012.05.12. 지방직 9급[국어][C 형] 해설

한국 고시 학원

이산 교수

1. 밑줄 친 문장 가운데 어법에 맞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을 지어 왔다. 그래서 소는 경작을 위한 중요한 필수품이지 식용 동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육질 섭취 수단으로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가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농경 생활을 했었음에 틀림없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정착하기 전에는 오랜 기간 수렵을 했었기 때문에 개가 우리의 소처럼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당연히 수렵한 결과인 소 등의 동물로 육질을 섭취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유럽의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문화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낸다. 그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다. 그러나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보면, ㉢힌두교도들 역시 쇠고기를 먹는 서유럽 사람들을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이슬람, 유대교도들 또한 서유럽의 돼지고기를 먹는 식생활에 거부감이 느낄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정답 풀이]

◎ 대하다 「…에」 (‘대한’, ‘대하여’ 꼴로 쓰여) 대상이나 상대로 삼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 강력 사건에 **대한** 대책

건강에 **대하여** 묻다. / 신탁 통치안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대 운동은 전국적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오답 풀이]

① 농경 →농사 : 의미가 중복된 표현

■ 농경(農耕) :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음

■ 농사(農事) : 곡류, 과채류 따위의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따위의 일

③ 사람들을 → 사람들에게 : 조사의 부적절한 사용

④ 거부감이 → 거부감을 : 조사의 부적절한 사용

2. 다음 글이 들어가야 할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린 때때로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상대방의 싶은 속대를 읽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깊은 마음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 자세, 제스처, 등을 해석하고 반응하는가?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① 글의 서론 부분 ② 글의 결론 부분 ③ 글의 본론 부분 ④ 예를 드는 부분

[정답] ①

[정답풀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측면’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서론 부분이다.

3.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에게 진짜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은 어쩌면 8.15 광복이라고나 해야 할는지도 모른다. 조국의 광복은 우선 내 조부를 몰락시켰다. 그의 위엄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서 헌 짚신짝처럼 짓밟혔고, 근동 세 마을을 먹여 살린다던 그 많던 가산들도 온통 거덜이 나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세상 탓으로 돌릴 수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에는 ( )이기는 할지언정 그의 앞에선 감히 얼굴조차 바로 쳐들지 못하던 소작인이며 하인배들에게 급기야는 가혹한 조리돌림까지 당해야 했던 그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그날의 수모를 삭히지 못한 채 그들이 자신의 상여 메는 것조차 유언으로 거부했던 터였다.

– 이동하, ‘파편'중에서–

① 곡학아세(曲學阿世) ② 면종복배(面從腹背) ③ 부화뇌동(附和雷同) ④ 허장성세(虛穽聲勢)

[정답] ② 면종복배(面從腹背) :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정답 풀이] 그러나 전에는 (　　)이기는 할지언정
그의 앞에선 감히 **얼굴조차 바로 쳐들지 못하던** (소작인이며 하인배들)에게
급기야는 **가혹한 조리돌림**까지 당해야 했던 그
-> 소작인들과 하인배들의 행동의 변화(적어도 이전에는 겉으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
[오답 풀이]
① 곡학아세(曲學阿世) :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③ 부화뇌동(附和雷同) :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④ 허장성세(虛張聲勢) :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4.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을 잘못 고친 것은?

①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 살렵니다.
② 우리 부부는 둘 다 돈을 **벌으므로** 여유가 있습니다. → 벌므로
③ 그는 땀에 **전** 작업복을 갈아입었다. → 절은
④ 모두 힘을 모아 차를 **밀읍시다**. → 밉시다.

[정답] ③ 절은 → 전
[정답 풀이] 어간 끝 받침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오, -ㄹ('ㄹ'받침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된다. 이때 매개모음 '으'를 삽입하면 안 된다.
(보기) '살다, 빌다'의 활용: 사네, 빕시다, 사세, 비오, 살수록

5.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한다. 분노 감정의 처리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이 적용된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공격 충동이 일어난다. 동물의 경우, 분노를 느끼면 이빨을 드러내게 되고 발톱을 세우는 등 공격을 위한 준비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사람의 경우에도 분노를 느끼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눈매가 사나워지며 이를 꽉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공격 행위와 관련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분노 감정이 강하고 상대방이 약할수록 공격 충동은 행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① 공격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　　② 분노가 야기하는 행동의 변화
③ 탈리오 법칙의 정의와 실제 사례　　④ 동물과 인간의 분노 감정의 차이

[정답] ②
[정답 풀이] 위 글의 중심 문장은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한다.'이다. 이어지는 뒷받침 문장에서는 분노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지가 제시되고 있다.

6.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토박이말이 있는데도 그것을 쓰지 않고 외국에서 들여온 말을 쓰는 버릇이 생겼다. '가람'이 옛날부터 있는데도 중국에서 '강(江)'이 들어오더니 '가람'을 물리쳤고 '뫼'가 있는데도 굳이 '산(山)'이 그 자리에 올라 앉고 말았다. (중략)
원래 '외래어'란, 우리말로는 적당하게 표현할 말이 없을 때에 마지못해 외국말에서 빌려다 쓰다가 보니 이제 완전히 우리말과 똑같이 되어 버린 것을 말한다. '학교, 선생, 비행기, 가족계획' 등등의 무수한 한자어가 그것이며, '버스, 빌딩, 커피, 뉴스' 등등 서양에서 들여온 외국어가 그것이다.

-허웅, '한글과 민족문화' 중에서'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②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뺀다.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④ 말은 해야 맛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정답] ②

[정답 풀이] 원래 있어야 할 것이 토박이말이고 그 자리에 한자어와 외국어가 들어와 쓰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린다.

■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뺀다 :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 풀이]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또는 아무리 비밀히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

④ 말은 해야 맛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

7.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① 두 집이 친하게 지낸 것은 최근의 일로써 그전에는 사이가 아주 나빴다.

② 홍 교수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대칭구조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③ 위에서 제시된 여러 근거를 종합해 보면 김 교수의 몽고에 대한 연구가 원 세조 등장 이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위적이다.

④ 그는 바깥 풍경이 잘 보이게 열심히 창문을 닦았다.

[정답] ④

[정답 풀이] 그는 바깥 풍경이 잘 보이게 열심히 창문을 닦았다. (부사절이 안긴 문장)

[오답 풀이]

① **로써** → **로**(시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조사의 부적절한 사용
오늘 이후**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겠다.
그는 봄가을**로** 보약을 먹는다.

② 안 된다**라고** → 안 된다**고** : 조사의 부적절한 사용(간접인용절이므로 '고'로 쓰는 것이 맞음)

③ 점**에서** → 점**이** : 서술어와 호응을 이루려면 부사어가 아니라 주어여야 한다.

8.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모든 학문은 나름대로 고유한 대상영역이 있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학문이 법학이며,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물론 그 영역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학문이란 일정 대상에 관한 보편적인 기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기술(記述)을 부여함으로써 그 대상을 조작,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실천성만이 학문의 동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학문은 사회로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
> 여기에서 핵심 낱말은 (　　)입니다. 결국 학문이 어떤 대상의 기술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술하는 사람의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원리적으로는 "누구에게도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논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그것을 전문용어로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지(知)에 대한 설명도 같은 지(知)의 공동체에 속한 다른 연구자가 같은 절차를 밟아 그 기술과 주장을 재검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론하고 반박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① 전문성　　② 자의성　　③ 정체성　　④ 보편성

[정답] ④

[정답 풀이] "누구에게도 그렇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보편성임을 알 수 있다.

■ 보편성(普遍性) :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

9. 다음을 하나의 단락으로 올바르게 완성하기 위해 나눈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주남 저수지의 백조들은 우아한 기품을 자랑하고 있다. ㉡ 올 겨울 주남 저수지에는 약 1만여 마리의 백조가 유유히 헤엄치며 무리를 이루고 있다. ㉢ 보통 때엔 목을 S자로 굽히지만, 경계할 만한 대상이 나타나면 목을 곧게 세우고 한 곳으로 모여든다. ㉣ 주남 저수지에는 왜가리와 큰 기러기가 상당히 있으며, 희귀종으로 알려진 재두루미도 12마리나 날아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 백조가 한 쪽 다리로 서서 머리를 등과 깃털 사이에 넣고 잠을 자기도 하고, 긴 목을 물 속 깊숙이 넣고 수초의 뿌리를 먹는 모습이 재미있다. ㉥ 날개를 무겁게 퍼덕거리며 발로 차듯 뛰어가며 날아오르는 모습은 환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① ㉢에는 '경계할 만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줘야겠어.
② ㉣은 단락 전체의 내용에서 벗어나니까 삭제해야 되겠어.
③ ㉥은 ㉠과 의미가 중복되니까 빼는 게 좋겠어.
④ 백조가 저수지를 떠난 뒤의 풍경을 묘사한 문장을 하나 추가하는 게 좋겠어.

[정답] ②
[정답 풀이] 위 글은 '<u>주남 저수지의 백조</u>'가 핵심어이다. 따라서 ㉣의 '왜가리와 큰 기러기, 재두루미'가 있다는 내용은 통일성에 어긋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10. 다음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진(秦) 나라 재상인 상앙(商鞅)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진나라 재상으로 부임한 상앙은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았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대궐 남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방문(榜文)을 붙였지요. " 이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백금(百金)을 하사한다." 옮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금을 만금(萬金)으로 인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금을 기대하지도 않고 밑질 것도 없으니까 장난삼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에 적힌 대로 만금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라의 정책을 잘 따르게 되고 진나라가 부국강병에 성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 신뢰의 중요성
② 부국강병의 가치
③ 우민화 정책의 폐해
④ 명분을 내세운 정치의 효과

[정답] ①
[정답 풀이] 위 글은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아 걱정하던 재상 상앙이 방문을 붙여 방문의 내용대로 행한 자에게 <u>약속한 만금을 하사했더니</u> 백성들이 나라의 정책을 잘 따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내용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1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옳은 것은?

① 묵호 Muko
② 극락전 Geuknakjeon
③ 경포대 Gyeongphodae
④ 평창 Pyeongchang

[정답] ④
[오답 풀이]
① Mu<u>k</u>o → Mu<u>kh</u>o (체언은 자음의 축약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② Geu<u>k</u>nakjeon → Geu<u>ng</u>nakjeon (자음동화는 표기에 반영, 된소리되기 현상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③ Gyeong<u>ph</u>odae → Gyeong<u>p</u>odae

12. 밑줄 친 표현 중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① 민주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u>지양(止揚)</u>한다.
②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u>도매급(都賣級)</u>으로 욕을 먹었다.
③ 그 회사는 사건의 진상을 <u>호도(糊塗)</u>하려고 한다.
④ 우리 할아버지는 <u>향년(享年)</u> 80세이신데도 정정하시다.

[정답] ③
[정답 풀이]
■ 호도(糊塗) :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 풀이]
① 지양(止揚) → 지향(志向) : '자유와 평등'은 목표이므로 '지향'이 적절함
■ 지양(止揚) :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피함', '하지 않음'의 뜻.
■ 지향(志向) :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② 도매급(×) → 도매금(都賣金)
■ 도매금(都賣金)[--끔] : '도매가격'의 뜻으로, 주로 '도매금으로' 꼴로 쓰여,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같은 무리로 취급받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향년(享年) → 행년(行年) 또는 당년(當年)
■ 향년(享年) :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죽을 때의 나이를 말할 때 쓴다.
■ 행년(行年) : 그해까지 먹은 나이. 또는 현재의 나이.('항년'은 잘못)
■ 당년(當年) : ㉠ 일이 있는 바로 그해. ㉡ =올해.
■ 방년(芳年) : 이십 세 전후의 한창 젊은 꽃다운 나이.

13. 외래어 표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이팅　② 슈퍼마켓
③ 꼬냑　④ 팸플릿

[정답] ③
[정답 풀이] 꼬냑 → 코냑
된소리 표기가 아닌 거센소리 표기가 맞는 경우 : 콩트, 펜치, 페스탈로치, 카페, 모차르트, 파리

14. 밑줄 친 단어를 어법에 맞게 사용한 것은?

① 아버지는 추위를 무릎쓰고 밖에 나가셨다.
② 외출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내 방에 잠깐 들르셨다.
③ 그가 미소를 띈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④ 내 능력 이상으로 크게 사업을 벌렸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정답] ②
[정답 풀이]
② 들르다 :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으 탈락', 과거형 : 들르었다=들렀다)
<주의>
■ 들리다 : '듣다'의 피동사. (과거형 : 들리었다=들렸다)
■ 들리다 : '들다[거(擧)]'의 사동사. (과거형 : 들리었다=들렸다)
■ 들리다 : 1)병이 걸리다. 2)귀신이나 넋 따위가 덮치다. (과거형 : 들리었다=들렸다)
[오답 풀이]
① 무**릎**쓰고(×) → 무**릅**쓰고(○)　<참고> 오지랖(○), 무릎팍(×) → 무르팍(○)
③ 띈 → 띤
■ 띠다 : 1)띠나 끈 따위를 두르다. 예 허리에 띠를 **띠다**.
2)물건을 몸에 지니다. 예 추천서를 **띠고** 회사를 찾아가라.
3)용무나 직책, 사명을 지니다. 예 임무를 **띠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4)빛깔이나 색채를 가지다. 예 얼굴에 홍조를 **띠다**. 붉은 빛을 **띤** 장미.
5)감정이나 기운을 나타내다. 예 얼굴에 노기를 **띠다**. 미소를 **띠다**.
6)어떤 성질을 가지다. 예 보수적 성격을 **띠다**. 일에 전문성을 **띠다**.

■ 띄다 : '뜨이다'('뜨다'의 피동사)의 준말. ㉠ 원고에 가끔 오자가 눈에 **띄다**. 빨간 지붕이 눈에 **띄다**.
■ 띄다 : '뜨다'의 사동사인 '띄우다'의 준말. ㉠ 다음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시오.
④ 벌렸다가 → 벌였다가
■ 벌이다 : 1)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 잔치를 **벌이다.** / 사업을 **벌이다.**
2)놀이판이나 노름판 따위를 차려 놓다. ㉠ 장기판을 **벌이다.** / 투전판을 **벌이다**.
3)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 책을 어지럽게 **벌여** 두다. / 좌판을 **벌이다.**
4)가게를 차리다. ㉠ 읍내에 음식점을 **벌이다.** / 전을 **벌이다.** / 가게를 **벌이다.**
5)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 ㉠ 논쟁을 **벌이다.** / 전투를 **벌이다. /** 협상을 **벌이다.**
■ 벌리다 : 1)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 간격을 **벌리다.** / 다리를 **벌리다.** / 입을 **벌리**다.
2)껍질 따위를 열어 젖혀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 ㉠ 밤송이를 **벌리다.** / 조개를 **벌리어** 살을 꺼냈다.
3)우므러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 ㉠ 자루를 **벌리다.** / 두 손을 **벌리다.** / 날개를 **벌리다**.
4)'벌다(일을 하여 돈 따위를 얻거나 모으다)'의 피동사 ㉠ 돈이 **벌리다**.

15. 밑줄 친 표현 중 잘못 사용된 것은?

① 고향 젓갈로 담가서 그런지, 이번 김치 맛은 그야말로 고향의 맛이야!
② 한참 동안 감기를 앓았다더니, 네 눈이 정말 상큼해졌구나.
③ 이사를 하게 되자, 매일 만나지 않고는 못 배기던 우리 사이가 조금씩 상기게 되었다.
④ 날씨가 추워져서 수도꼭지를 잠궈 두었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잠궈(×) → 잠가 (○) '잠그다'는 '으' 탈락(규칙용언)

16.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학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무릇 사천 년이 넘는 생활의 역사를 가진 만큼 그 발전 시기마다 각각 특색을 가진 문학이 없을 수 없고, 문학이 있었다면 그 중추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가문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대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성립하는 동시에 벌써 각자의 감정과 의사를 표시하려는 욕망이 생겼을 것이며, 삼라만상의 대자연은 자연 그 자체가 율동적이고 음악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시가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사람의 지혜가 트이고 비교적 언어의 사용이 능란해짐에 따라 종합 예술제의 한 부분으로 있었던 서정문학적 요소가 분화·독립되어 제요나 노동요 따위의 시가의 원형을 이루고 다시 이 집단적 가요는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하여 갔으리라 추측된다.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문학사상 시가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몫을 지니고 있다.

㉠ - ㉡ - ㉢
① 왜냐하면 - 그리고 - 그러므로
② 그리고 - 왜냐하면 - 그러므로
③ 그러므로 - 그리고 - 왜냐하면
④ 왜냐하면 - 그러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 ①
[정답 풀이] ① 왜냐하면 - 그리고 - 그러므로
㉠에는 문장의 서술어인 '때문이다'와 호응해야 하므로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한다.
㉡에는 앞 뒤 문장이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그리고'가 적절하다.
㉢에는 앞 뒤 문장이 '원인-결과'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그러므로'가 적절하다.

17. 밑줄 친 표현을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거법 저촉(抵觸)(→해당) 여부를 검토하다.
② 국력 배양에 가일층(加一層)(→한층 더) 매진하다.
③ 그들은 대절(貸切)(→전세) 버스 편으로 상경했다.

④ 검찰에서는 악덕 상인들의 매점(買占)을(→사재기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답] ①
[정답 풀이] '해당' → '위반(違反)'
■ 저촉(抵觸): 1)서로 부딪치거나 모순됨.
2)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거슬림.
예 당국의 검열에 **저촉**이 되다. /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다.

18.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1960년대 중반 생물학계에는 조지 윌리엄스와 윌리엄 해밀턴이 주도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혁명의 골자는,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도 아니고 그 개체 자신의 이익도 아니고,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인간은 또 하나의 동물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도구이자 일회용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 혁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철저하게 냉혹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왜 따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인간의 이타성과 협력이 유전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① 인간은 유전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② 인간은 때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기도 한다.
③ '이기적인 유전자' 혁명은 인간이 유전자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④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③
[정답 풀이] ③번의 내용은 본문의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 혁명이 전화는 메시지는 ~(중략)~ 오히려 인간이 왜 따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라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19.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사용된 것은?

① 체로 술을 받친다.
② 요즘 영수는 수영에 흥미를 붙이고 있다.
③ 이것으로 축사를 갈음합니다.
④ 고무줄을 더 늘이면 끊어질 것이다.

[정답] ① '받치다' → '밭치다'
[정답 풀이]
■ 밭치다 : '밭다'의 강조.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나 거르기 장치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내다.
■ 받치다 : 우산을 받치고 간다. / 책받침을 받친다. / 기둥 밑을 돌로 받친다. / 시옷 받침. 받침, 밑받침
[오답 풀이]
② ■ 부치다: 1)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 예 힘이 **부치는** 일이다. / 실력이 **부치다**. / 기력이 **부치다**.
2)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
예 편지를 **부치다**. / 짐을 **부치다**. / 돈을 **부치다**. / 통지서를 **부치다**.
3)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 예 논밭을 **부치다**. / **부쳐** 먹을 내 땅 한 평 없다.
4)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예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다**, / 인권 침해 책임자를 재판에 **부쳐** 처벌하였다.
5)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
예 극비에 **부치다**. / 비밀에 **부치다**. / 불문에 **부치다**. / 일체의 사실을 보안에 **부쳤다**.
6)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예 접수된 원고를 편집하여 인쇄에 **부쳤다**.
7)마음이나 정 따위를 다른 것에 의지하여 대신 나타내다.
예 논개는 진주 망한 한을 시에 **부쳐** 바람에 날린다. / 시인은 외로움을 기러기에 **부쳐** 노래한다.

8)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
예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 / 밥은 주인 집에다 **부쳐** 먹기로 했다. / 형 집에 가서 몸을 **부치고** 있었다. / 이 집에서 하숙을 **부치기**로 했다. / 병든 몸을 김 씨 집에 **부쳐** 지냈다.
9)어떤 행사나 특별한 날에 즈음하여 어떤 의견을 나타내다. 주로 글의 제목이나 부제(副題)에 많이 쓰는 말이다. 예 한글날에 **부쳐** / 식목일에 **부치는** 글 / 젊은 세대에 **부치는** 서(書).
10)음식을 익혀서 만들다. 예 계란을 **부치다**. / 전을 **부치다**. / 빈대떡을 **부치고** 계신다.
11)부채 따위를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예 부채를 **부치다**.

■ 붙이다: 1)'붙다(1.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의 사동사
예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 문 위에 간판을 **붙이다**. / 입 주변에 밥풀을 **붙이면서** / 유명 상표를 **붙여**
2)'붙다(3. 불이 옮아 타기 시작하다)'의 사동사
예 연탄에 불을 **붙이다**. / 담뱃불을 **붙이다**. / 성냥불을 초 끝에 **붙이고** 만수향을 피웠다.
3)'붙다(6. 조건, 이유, 구실 따위가 따르다)'의 사동사.
예 계약에 조건을 **붙이다**. / 이유를 **붙이다**. / 구실을 **붙이다**. / 단서를 **붙이다**. / 설명을 **붙이다**.
4)'붙다(7. 식물이 뿌리가 내려 살다)'의 사동사. 예 땅에 뿌리를 **붙이다**.
5)붙다(9. 주가 되는 것에 달리거나 딸리다)'의 사동사. 예 본문에 주석을 **붙이다**. / 가사에 곡을 **붙이다**.
6)내기를 하는 데 돈을 태워 놓다. 예 내기에 1000원을 **붙이다**.
7)신체의 일부분을 어느 곳에 대다. 예 등을 **붙이고** 누워 있다. / 창에 얼굴을 **붙이다**. / 벽에 몸을 **붙이다**.
8)<민속> 윷놀이에서, 말을 밭에 달다. 예 세 번째 말을 **붙이다**.
9)'붙다(1. 물체와 물체 또는 사람이 서로 바짝 가까이하다)'의 사동사.
예 가구를 벽에 **붙이다**. / 땅에 발을 **붙이고** 서 있었다. / 글씨를 **붙여** 쓰다. / 책상들을 꺼내 복도 벽에 **붙였다**.
10)'붙다(3. 바로 옆에서 돌보다)'의 사동사.
예 중환자에게 간호사를 **붙이다**. / 가정 교사를 **붙여** 주다. / 경호원을 **붙이다**. / 전담 수비수들을 **붙이다**.
11)'붙다(8. 어떤 것이 더해지거나 생겨나다)'의 사동사.
예 다리에 힘을 **붙였다**. / 요령을 **붙여** 주는 / 몸에 살을 **붙여야지**. / 높은 이자를 **붙이다**. / 이익을 **붙이다**.

③ ■ 갈음 : 다른 것으로 대신하다. 대체하다. '갈다 [代替] '의 어간에 '-음'이 붙은 형태
예 다른 방법으로 **갈음**해라. / 가족 인사로 약혼식을 **갈음**합니다.
■ 가름 : 구분하다. 서로 가르다. '가르다'의 어간에 '-ㅁ'이 붙은 형태이다.
예 선수들의 투지가 승패를 **가름**했다. / 편을 **가름**. / 둘로 **가름**.
■ 가늠 :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헤아려보다. 짐작하다.
예 전봇대의 높이를 **가늠**하다. / 너의 속마음을 **가늠**할 수 없다.

④ ■ 늘이다: 1)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예 엿가락을 **늘이다**. / 고무줄을 **늘이다**.
2)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다. 예 주렴을 **늘이다**. / 김 씨는 벌써부터 점방에 국수를 발처럼 **늘여** 널었다.
■ 늘리다: 1)'늘다1(1.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다)'의 사동사 예 바짓단을 **늘리다**.
2)'늘다1(2.수나 분량, 시간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다)'의 사동사 예 학생 수를 **늘리다**. / 시험 시간을 **늘리다**.
3)'늘다1(3.힘이나 기운, 세력 따위가 이전보다 큰 상태가 되다)'의 사동사 예 세력을 **늘리다**.
4)'늘다1(4.재주나 능력 따위가 나아지다)'의 사동사. 예 실력을 **늘리다**.
5)'늘다1(5.살림이 넉넉해지다)'의 사동사. 예 살림을 **늘리다**. / 재산을 **늘리다**.
6)'늘다1(6.시간이나 기간이 길어지다)'의 사동사 예 쉬는 시간을 **늘리다**.
■ 느리다 :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속도가 더디다. 예 행동이 **느리다**. / 진도가 **느리다**.

20.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인력이 필요해서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더라."라는 말이 있다. 인간을 경제적 요소로만 단순하게 생각했으나, 이에 따른 인권문제, 복지문제, 내국인과 이민자와의 갈등 등이 수반된다는 말이다. 프랑스처럼 우선 급하다고 이민자를 선별하지 않고 받으면 인종갈등과 이민자의 빈곤화 등 많은 사회비용이 발생한다.
(나) 이제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 살면서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상생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만 다문화 가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까지 큰 틀에서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하다.
(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언어 배우기, 일자리, 문화 이해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좋은 인력을 선별해서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 인구 유입 초기부터 사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 이미 들어온 이민자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언어와 문화, 환경이 모두 낯선 이민자에게는 이민 초기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이 아닌 주류층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차별과 편견으로 내국인에게 증오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① (라)-(나)-(다)-(가)
② (다)-(나)-(라)-(가)
③ (라)-(다)-(나)-(가)
④ (다)-(가)-(라)-(나)

[정답] ④
[정답 풀이] 접속어나 지시어가 없으므로 각 문단의 공통 화제를 중심으로 앞뒤 순서를 정해야 한다.
(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1)좋은 인력을 선별해서 입국하도록 하는 것 2)사회통합에 주력해야 하는 것
(가) 1)에 대한 상술로서 이민자를 선별하지 않고 받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
(라) 2)에 대한 상술로서 '이미 들어온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나) 이 글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해야 한다."라는 서술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주제 :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